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5. 30.(화) 배포 즉시	사진	○	자료	x	매수	2
담당부서	경기교통공사 (모빌리티전략팀)	팀 장	한중학 (031-860-1531)				
		담당자	박대건 (031-860-1533)				

경기교통공사-대구교통공사, 모빌리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

- 경기교통공사-대구교통공사, 주력사업 노하우 교류를 위한 MOU 체결
 - 신교통사업(똑버스 등), 철도 운영 등 주요 역량 교류를 통해 모빌리티 분야 선도 목적
 - 모빌리티 정부 정책 수행과 시장동향 등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예정

경기교통공사는 30일 대구교통공사 회의실에서 대구교통공사와 모빌리티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도·시민 편의 증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상호 공동 발전에 대한 신교통사업과 철도운영 사업 협력을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똑버스·똑타 등 신교통사업 및 철도운영 사업 공유·협력 ▲모빌리티 관련 정부 정책 수행 ▲모빌리티 관련 연구역량 강화 등이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의 광역도시철도 사업운영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대구교통공사는 도시철도와 연계하는 교통수단을 강화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은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는 양 공사가 상생 및 상호발전 차원에서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철도운영까지 사업영역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 입장에서, 대구교통공사의 철도사업 노하우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와 공공버스에 강

점을 가진 양 기관이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상생 발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빌리티, R&D 분야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업무협약은 지난 3월 똑타와 똑버스 벤치마킹을 위해 대구교통공사가 경기교통공사를 방문한 것이 인연이 돼 이뤄졌다.

경기교통공사의 똑버스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선두주자로 다른 지자체들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파주 운정·교하 지구에서의 시범사업을 시작(10대 운영)으로 올해 3월 안산 대부도에 4대, 5월에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15대가 운영을 시작했다. 앞으로도 김포를 포함하여 수원(광고), 고양(식사·고봉), 화성(동탄·향남), 양주(옥정·삼송), 남양주(별내·수동·오남·진접), 하남(위례·감일) 등 경기도 내 10개 시·군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해 총 126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대구교통공사는 대구도시철도 1, 2, 3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파나마 등 해외 철도운영 및 건설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용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가고객만족도(NCSI) 15년 연속('09~'23년) 1위 달성의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